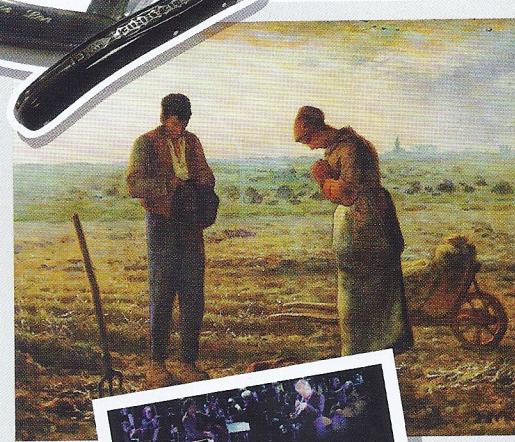


# Scent of a Wine Mas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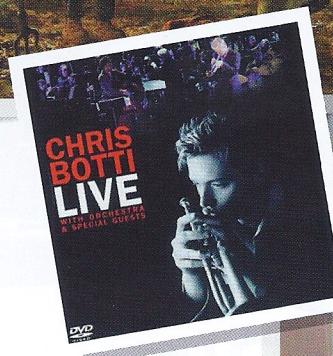
좋은 와인처럼 깊고 우아하며 농후한 향을 풍기는 여인. 영국의 와인 잡지 <디캔터>가 '와인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' 26위에 꼽은 아시아 유일의 와인 마스터 지니 조 리(Jeannie Cho Lee)는 일상을 와인처럼 사는 여자다.



◀ 지니 조 리의 이름을 새긴 수공에 와인 오프너와 스테이크ナイ프는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다. 어렵게도 '같'이라는 것 때문에 공항 김문에 걸려 들고 다니지는 못한다.



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장 프랑수아 밀리에의 '만종',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남녀를 볼 때마다 와인은 자연이 주는 선물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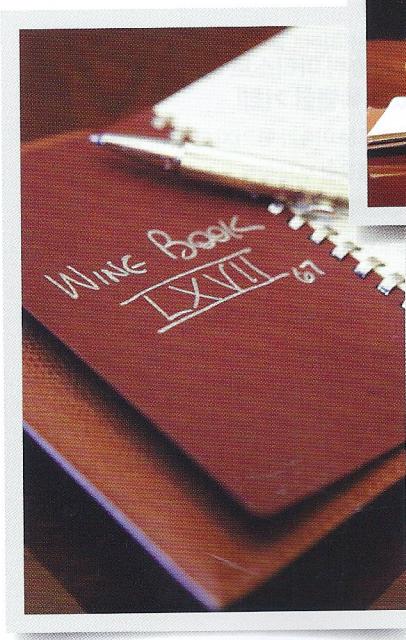


▲ 최고의 재즈 트럼펫을 꿈으면서 '당연히 크리스 보티'라 말하겠다는 지니 조 리.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아까운 와인 한 병을 꺼내 마시며 그의 섬세한 연주를 들으면 내면에 짐재된 로맨틱한 감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.



▲ 몽레 생밀날, 파리의 레스토랑 '르 조지(Le George)'에서 사랑스러운 네 딸과 함께. 연은 입으로 와인 마스터 시험을 4년이나 미뤄야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좋아하는 와인을 참으면서까지 네 딸에게 모유 수유를 했을 정도로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다.

▼ 방대한 와인 컬렉션 중 그녀가 꼽는 베스트 3, '1982 오 브리옹(Haut Brion)'은 훌륭한 빈티지로 클래식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. '1970 페트루스(Petrus)'는 왜 페트루스가 와인 경매의 최고가 리스트에 오르는 단골손님인지 알려주는 명작. 희소성이 높은 '1988 꽁트 드 보귀에 무시니 그랑 크뤼(Comte de Vogue Musigny Grand Cru)'는 아름답고 강한 아로마를 뽐낸다.



◀ 지니 조 리의 67번째 와인 노트, 20년간 사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말끔한 에르메스 마이어리는 와인 테이스팅 리뷰와 스케줄, 메모로 빼곡하다. 사이즈가 작아 휴대하기 좋은 금빛의 파커 불펜은 10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로 저널리스트 출신의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것 중 하나다.

▶ 그녀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으로 꼽은 '소테른 월병(Sauternes Moon Cakes)', 홍콩의 5성급 호텔인 구룡 상그릴라(Kowloon Shangri-La)의 세프들과 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제작한 것으로, 설탕 대신 소테른 지방의 그랑 크뤼 와인인 '2009 푸티 기로(Petit Guiraud)'를 사용해 더 향기롭고 다채로운 맛의 현대적 월병이 탄생했다.

